

MLB 구단주, 7월 개막안 승인 경기 수 절반 축소



▲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 디트로이트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연주 중 성조기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프로야구(MLB) 구단주들이 11일 MLB 사무국이 준비한 7월 정규리그 개막 방안을 승인했다. MLB 사무국은 이 제안을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와 본격적으로 협상한다.

MLB 사무국은 정규리그를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이 있는 주간에 시작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늦게 시작되기에 정규리그 경기 수는 팀당 162경기에서 82경기로 대폭 줄인다.

리그는 내셔널·아메리칸리그 대신 인접한 팀끼리 벌이는 리그로 재편되고, 지명 타자를 모두 도입한다. 리그 구분 없이 올해에만 10개 팀씩 배정된 동부·중부·서부리그로 편성되는 것이다.

다만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 협상의 핵심인 '돈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각 구단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장료 관련 수입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구단 수입의 절반을 선수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 MLB 사무국과 합의한 '코로나19 임금협상'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주장하는 선수노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코로나19 안전 문제도 협상의 주제로 논의한다. 선수, 가족, 구단 직원, 야구장 노동자 등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가 핵심이다.

K리그 개막에 전 세계 축구팬 열광

지구촌 축구팬들의 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주요 축구리그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부터 무관중으로 시작된 2020 K리그는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축구팬들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K리그 콘텐츠에 몰려드는 중이다.

1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개막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개막전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었으며 무려 360만 명 이상이 지켜봤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막을 앞두고 세계 36개국에 중계권이 팔릴 정도로 K리그가 주목을 받아 영어 중계와 자막을 동원해 트위터와 유튜브로 공식 개막전을 생중계했다.

프로축구연맹이 12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누적 접속자는 트위터 140만 명, 유튜브 23만4,000명이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12일 오전 10시까지 접속한 인원 200만 명을 더하면 모두 363만4,000여 명이 경기를 찾아봤다.

트위터로 경기를 접한 340만 명을 국가별로 집계한 결과 터키 축구팬들이 전체의 18%를 차지해 61만명 이상이 K리그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 강국 브라질(15%), 스페인(9%), 아르헨티나(7%) 등이 뒤를 이었



▲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2020 K리그 개막전 모습

다. 축구가 일상인 이들 국가에서 경기가 치러지지 않자 다수의 팬이 K리그를 대체재로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축구 팬들도 7%에 달했다.

언론들도 K리그 개막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미국의 ESPN은 'K리그는 축구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라운드 경기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전을 생중계한 영국의 BBC는 응원가 녹음 파일 등을 경기장에 트는 등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주목하기도 했다. 독일 키커는 서울 이랜드의 독일 출신 공격수 수쿠타-파수가 "현재 서울의 상황은 전혀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손흥민, 이시아 선수 시장 가치 1위

손흥민(27, 토트넘 홋스퍼)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의 시장 가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12일 '스포탈코리아'에 따르면 영국의 '90min'은 최근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 TOP10을 공개했다.

선수 개인 능력, 나이, 계약 기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도출한 결과 손흥민이 6,400만 유로(약 6,900만 달러)로 몸값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해 이강인(발렌시아)과 황희찬(레드불 잘츠부르크)이 순위권에 포함됐다.

국적별로 일본이 4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나카지마, 도미야스, 쿠보, 미나미노 4명의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해 손흥민에게 못 미친다.

◆ 영국 90min 선정 아시아 선수 시장 가치 TOP10

1.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 6,400만 유로, 한국
2. 나카지마 쇼야(FC포르투) : 1,600만 유로, 일본
3. 사르다르 아즈 문(제니트) : 1,450만 유로, 이란
4. 이강인(발렌시아) : 1,350만 유로, 한국
4. 도미야스 다케히로(볼로냐) : 1,350만 유로, 일본
4. 쿠보 타케후사(마요르카) : 1,350만 유로, 일본
7. 황희찬(레드불 잘츠부르크) : 1,000만 유로, 한국
7. 미나미노 타쿠미(리버풀) : 1,000만 유로, 일본
9. 애런 무이(브라이튼 앤 호브 앨비언) : 950만 유로, 호주
10. 매튜 라이언(브라이튼 앤 호브 앨비언) : 800만 유로, 호주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